전도서**Ecclesiastes**

Week 1: 증기**Vapor**

브래드 목사

- "무의미한 " “Meaningless”
- Hevel = 증기, 안개, 숨결 Vapor, Mist, Breath.
- "태양 아래 / 하늘 아래 "Under the Sun / Under the Heavens”
- “하지만 내가 조사했을 때” “Yet When I Surveyed”
- “만약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은 거짓말입니다. “If I could just…then I’d be…” is a LIE.

전도서**Ecclesiastes 1:1-18**

1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2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3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4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5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6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7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8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9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10'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11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12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13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 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14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15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16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17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18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1 The words of the Teacher,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2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3 What do people gain from all their labors at which they toil under the sun?

4 Generations come and generations go, but the earth remains forever.

5 The sun rises and the sun sets, and hurries back to where it rises.

6 The wind blows to the south and turns to the north; round and round it goes, ever returning on its course.

7 All streams flow into the sea, yet the sea is never full. To the place the streams come from, there they return again.

8 All things are wearisome, more than one can say. The eye never has enough of seeing, nor the ear its fill of hearing.

9 What has been will be again, what has been done will be done again;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10 Is there anything of which one can say, “Look! This is something new”? It was here already, long ago; it was here before our time.

11 No one remembers the former generations, and even those yet to come will not be remembered by those who follow them.

12 I, the Teacher, was king over Israel in Jerusalem. 13 I applied my mind to study and to explore by wisdom all that is done under the heavens. What a heavy burden God has laid on mankind! 14 I have seen all the thing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ll of them are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15 What is crooked cannot be straightened; what is lacking cannot be counted.

16 I said to myself, “Look, I have increased in wisdom more than anyone who has ruled over Jerusalem before me; I have experienced much of wisdom and knowledge.” 17 Then I applied myself to the understanding of wisdom, and also of madness and folly, but I learned that this, too, is a chasing after the wind.

18 For with much wisdom comes much sorrow; the more knowledge, the more grief.

전도서**Ecclesiastes 2:1-24**

1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2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3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 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4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 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5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6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7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 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 떼를 가져 보았다.

8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9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10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11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12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 보기도 하였다.

13"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14"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15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16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17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18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19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20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21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22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23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24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25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26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I said to myself, “Come now, I will test you with pleasure to find out what is good.” But that also proved to be meaningless. “2 “Laughter,” I said, “is madness. And what does pleasure accomplish?” 3 I tried cheering myself with wine, and embracing folly—my mind still guiding me with wisdom. I wanted to see what was good for people to do under the heavens during the few days of their lives.

4 I undertook great projects: I built houses for myself and planted vineyards. 5 I made gardens and parks and planted all kinds of fruit trees in them. 6 I made reservoirs to water groves of flourishing trees. 7 I bought male and female slaves and had other slaves who were born in my house. I also owned more herds and flocks than anyone in Jerusalem before me. 8 I amassed silver and gold for myself, and the treasure of kings and provinces. I acquired male and female singers, and a harem as well—the delights of a man’s heart. 9 I became greater by far than anyone in Jerusalem before me. In all this my wisdom stayed with me.

10 I denied myself nothing my eyes desired; I refused my heart no pleasure. My heart took delight in all my labor, and this was the reward for all my toil.

11 Yet when I surveyed all that my hands had done and what I had toiled to achieve, everything wa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nothing was gained under the sun.

12 Then I turned my thoughts to consider wisdom, and also madness and folly. What more can the king’s successor do than what has already been done?

13 I saw that wisdom is better than folly, just as light is better than darkness.

14 The wise have eyes in their heads, while the fool walks in the darkness; but I came to realize that the same fate overtakes them both.

15 Then I said to myself, “The fate of the fool will overtake me also. What then do I gain by being wise?” I said to myself, “This too is meaningless.”

16 For the wise, like the fool, will not be long remembered; the days have already come when both have been forgotten. Like the fool, the wise too must die! ”

17 So I hated life, because the work that is done under the sun was grievous to me. All of it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18 I hated all the things I had toiled for under the sun, because I must leave them to the one who comes after me. 19 And who knows whether that person will be wise or foolish? Yet they will have control over all the fruit of my toil into which I have poured my effort and skill under the sun. This too is meaningless. 20 So my heart began to despair over all my toilsome labor under the sun.

21 For a person may labor with wisdom, knowledge and skill, and then they must leave all they own to another who has not toiled for it. This too is meaningless and a great misfortune. 22 What do people get for all the toil and anxious striving with which they labor under the sun? 23 All their days their work is grief and pain; even at night their minds do not rest. This too is meaningless.

24 A person can do nothing better than to eat and drink and find satisfaction in their own toil. This too, I see, is from the hand of God, 25 for without him, who can eat or find enjoyment? 26 To the person who pleases him, God gives wisdom, knowledge and happiness, but to the sinner he gives the task of gathering and storing up wealth to hand it over to the one who pleases God. This too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